

매터리얼리티 (Mattereality)

김 윤 철 (예술가, 고등과학원)

I. 서론

II. 출렁임

III. 얽힘

IV. 층위 그리고 결들

V. 결론

I. 서론

물질 · 비물질 · 질료 · 형상 · 휴머니티 · 매터리얼리티 · 실재 · 사물 · 마음 · 인간 · 비-인간 · 기계 · 동물 · 사변 · 기술 · 과정 · 과학 · 예술 등의 많은 개념들이 오늘날 다시 생각되어지고 (re-thinking) 있다. 이러한 사유의 재설정(re-configuration)은 기존 철학의 인간중심적이고 이분법적인 대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며, 오랜 인식론의 헤게모니에 의해 제한되어진 세계로부터 과감히 탈주하고자 하는 시도이자, 개념들로부터 소외되고 물자체(thing-in-itself)에 가려진 것들을 얽혀있는 세계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세계 밖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사유를 다시 그 안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여전히 앎과 실체 사이의 이격을 유보하고 있음에도, 과학과 기술의 진보는 새로운 물질성의 엔지니어링을 가능하게 하였고 그를 통한 조작과 이행이 가능한 신재료, 나노물질(nanomaterials), 스마트 매터리얼(smart material) 그리고 소프트 로보틱스(soft robotics) 등은 이미 일상의 곁에 쉽게 놓이고 있다. 이안 해킹(Ian Hacking)은 우리는 전자(electron)의 발견 이후 우리가 관찰자로 있던 미시세계에서 이제는 전자를 도구화(re-tooling)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는 세계 안으로 보다 깊이 개입하고 있다고 말한다.

소수의 동시대 예술가들은 이미 이러한 변화를 그들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 중국 북경의 국제 미디어아트 트리엔날레, 오스트리아 린츠의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 그리고 독일 칼스루헤의 ZKM 등에서는 일련의 결과물들이 전시와 동시에 담론화되면서 미술 이론의 현장에서는 신유물론적이며 객체지향적이고 사변적실재론적인 사유를 하는 텍스트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담론과 실천으로 인해 드러나는 세계의 징후들을 더듬으려 한다. 이를 위해 실재론적인 매터리얼리티(Mattereality)와 인식론적인 매터소피(Mattersophy)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앎에 대한 실천으로써 그 실천을 세계로 재도입함에 있어 언어 안에 갇혀버린 사물들에 틈을 내어 세계에 융해시키는 것을 도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캐런 바라드(Karen Barad)가 이야기하는 인간과 비-인간 의 내적-작용(intra-action)을 통하여 앞서 나열한 바 있는 많은 개념의 이분법적인 대립을 해체함으로써 대립을 차이로 변환하는 매터링(Mattering)¹⁾을 생성하고자한다.²⁾

1) 매터링(mattering)이라는 용어는 '물질되기'로 번역될 수도 있으나, 본 글에서는 물질화되는 과정 뿐 아니라 그 자체로서의 의미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기에 '매터링'이라는 고유의 단어를 사용하였다.

2) Karen barad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Duke University Press, 1997

II. 출렁임

비중(比重)과 극성(極性)이 다른 두 개의 유체 - 알코올과 파라핀유 (paraffin oil)와 같은 - 는 서로 섞이지 않은 채 자신들의 평형을 향하여 하나의 경계면을 이루며 유리병 안에 담겨진다. 그곳엔 중력 이외의 힘들 또한 작용하는데, 유체의 서로 다른 열팽창과 열전도성의 차이로 인하여 실내의 작은 온도 변화에도 민감하게 경계면들이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대류가 일어나면서 아래와 위에 위치한 유체가 서로 자리를 바꾸기도 한다. 이렇듯 인위적인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개입 없이도 유체는 유리병 밖의 세계와의 힘들과 에너지의 교환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는 미세한 출렁임을 멈추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인위적으로 열을 가해 외부의 온도를 조정하거나 혹은 다른 재질의 용기에 담음으로써 열전도성에 차이를 주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 반복하여 재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날 작업실의 창가에 놓인 유리병 속의 두 유체의 출렁임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스스로 발현(manifest) 될 때, 이 현상과의 우연한 조우는 마치 창가에 매마르던 선인장에서 꽃이 피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감각을 일깨우며 이것은 때로 우주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한다.

우리는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해 그 안에 잠재하고 있던 ‘깨어짐’이라는 고유의 성질이 비로소 발현되고 현실화(actualization) 되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유체 상태의 헬륨-4가 극저온저압의 상태에서 그 점성이 ‘0’이 되는 초유체(Superfluid)의 상태로 전이됨에 따라, 그것이 담긴 용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지 않아도 스스로 용기의 표면을 따라서 넘쳐 흐르게 되는 크리프 현상(creep)이 일어나는 것은 일상의 인식과 지각을 넘어서는 물질성(Materiality)의 발현이다. 이처럼 물질이 외부 환경의 변화 혹은 자극에 의해 자신의 물질성을 발현하게 되는 것을 물질의 성향(disposition)이라고 하는데, 이 성향은 암흑물질(Dark matter)처럼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채로도 중력렌즈 효과(gravitational lensing)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관측되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물질에는 우리가 감각하고 인식하는 세계의 피상 너머로 물질 고유의 성향이 내재적으로 잠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사고만으로는 물질에 잠재하는 고유의 성향이 어떻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물성으로 발현될 것인지 알 수 없다. 과학적이건 아니면 상징주의자들의 방법론 중의 하나인 사물의 낯선 전치(displacement)를 통해서건 간에, 헬륨-4의 초유체적인 성향이 극저온저압의 상태에서 발현되어 우리에게 지각되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헬륨-4에 내재한 물질의 성향을 알 수 없는 것이다. 만일 물이 영하의 조건에 얼음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겐 얼음은 물과 다른 또 하나의 별개의 물자체(things-in-itself)이며 얼음과 물은 전혀 다른 본질(substance)으로써 그의 인식으로 닿을 수 없는 세계의 바닥으로 잠겨버릴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금성(金星)이라는 별을 마치 두 개의 다른 별인 것처럼 초저녁에는 셋별로 새벽에는 개밥바라기별이라는 이름으로 다르게 부르듯이, 그것이 문화적 맥락에서의 편의에 의한 것이건 혹은 오류이건 간에 언어와 인식이 그것의 대상과 그 존재와는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다.

칸트 이후의 서양 철학에 있어서의 세계는 오직 나의 인식과 관계하고 있고, 극단적으로 조지 버클리(George Berkeley, 1685 - 1753)의 경우는 모든 사물들은 정신에 의해 지각된 관념(Idea)일 뿐이라 말하며 마음으로부터 독립된 물질의 실체(Material Substance)를 부정하는 비물질론(Immaterialism)을 구축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유는 주체로서의 인간과 객체로서의 자연이라는 인간중심적이고 이분법적인 관계 안에서 세계를 개념화한다. 그러나 형이상학적 세계 안에서의 물은 더 이상 출렁이지도, 얼지도, 증발하지도 않는다. 논리학에는 시간이 없듯이 그곳엔 기후가 없다.

더 나아가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Werner Karl Heisenberg)의 불확정성원리에서는 측정이라는 행위 자체가 인과적(causality)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미립자의 세계로까지 개입하게 된다. 이러한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한계를 가장 먼저 철학적으로 사유한 이는 아마도 플라톤(Plato)일 것이다. 그는 『티마이오스(Timaeus)』에서 우리가 불과 물과 같이 끝없이 변화하는 무언가를 경험할 때 항상 ‘이것(This)’이라고 칭하지 않고, ‘그것은 이러 저러한 성질이다’라고 말해야한다고 하며, 그것은 ‘이것’ 혹은 ‘저것’으로 불리어지거나 어떤 영속적 존재(Being)라는 문장으로 묘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언어로부터 미끄러져 나간다고 말한다.

이렇듯 형이상학적 개념들과 언어로부터 끊임없이 미끄러지고 있는 ‘물질성’과 ‘그것의 실재’ 그리고 ‘그것에 잠재한 성향’을 나는 여기서 매터리얼리티(Matterreality)라 칭하고자 한다. 즉, 매터리얼리티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부분이 아니라 시공간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출렁이고, 얽혀지며(entangled), 그리고 되어지는(becoming) 우주인 것이다.

III. 얽힘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계로의 미끄러짐에서 어떠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실재(Reality)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 실재를 다시 세계로 돌려 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비단 인식론과 존재론에 국한된 철학에서 뿐만 아니라 과학, 테크놀로지, 문화, 예술 외 여타의 분야에서 서로 다른 개념적 마찰들이 있고 이러한 문제들마저 떠안은 채 출발한 새로운 담론들이 창발하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위에 언급한 바 있는 칸트 이후의 상관주의(Correlationism)적 철학을 극복하고자 하는 퀴앵 메이야수(Quentin Meillassoux)의 사변적실재론(Speculative Realism/SR), 급진적으로 모든 것을 일원론(Monism)적인 객체로 설명하며 존재의 자리를 객체로 바꾸고 그 존재 아래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그레이엄 하만(Graham Harman)의 객체지향철학(Object-Oriented Philosophy/ OOP), 세계는 개념화될 수 없고 오직 사변만이 남는다는 레이 브래시어(Ray Brassier)의 초월적 허무주의(Transcendental Nihilism), 그리고 세계는 현상(Phenomena)으로 만들어졌다는 수행적 리얼리즘(Agential Realism/ AR)의 캐런 바라드(Karen Barad)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들은 칸트 이후의 철학에서의 인식론적 제한에 대한 반동으로부터 출발하여 수많은 가치를 엮어가고 있으며, 서로 다른 방법론을 가지고 고유의 철학적 지향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사변적실재론(SR)과 신유물론(New Materialism)이라는 공통의 주제들을 공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사상과 이론들은 대륙철학(Continental philosophy)을 향해 전 방위로 균열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들 앞에서 폴 엔니스(Paul Ennis)는 만일 우리가 사물들 그 자체로 돌아간다면 유럽의 사상은 형이상학(Metaphysic)과 사변(Speculation) 그리고 실재론(Realism) 사이의 동맹이 반드시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지평들 위에서의 실재라는 개념 또한 ‘마음-의존적 실재(mind-dependent Reality)’와 ‘마음-독립적 실재(Mind-independent Reality)’라는 이론적 대립은 여전하지만 위와 같은 다시-생각하기(Re-thinking)는 모든 분야에서 창발하고 있고 이러한 담론들은 다시금 ‘새롭다(new-)'는 접두사를 성취하며 하나의 새로운 동력으로 예술을 포함한 여러 분야를 자유롭게 횡단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서양의 인간과 자연, 주체와 객체를 구별하는 인간중심적(Anthropocentric) 사유의 한계와 그것을 넘어서려는 노력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 애초에 ‘사물 안의 세계(World in things)’와 ‘세계 안의 사물(Things in world)’로 만물과 세계의 운동을 거대한 연결망으로 펼쳐놓은 동양의 생태중심적(Ecocentric) 세계관에 익숙한 우리에게 그것은 가히 낯설지 않은 않을 것

이다.³⁾ 여기에 캐런 바라드(Karen Barad)의 글 「포스트 휴머니스트 수행성(Posthumanist Performativity)」의 첫 부분에 나오는 스티브 사비로(Steve Shaviro)의 문장을 인용하고자 한다.

도대체 우리는 문화와는 반대로 자연이 반역사적이고 영원하다는 이상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 우리는 우리의 영리함과 자의식에 너무도 감명 받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늘 하는 뻔하고 인간중심적인 이야기들을 멈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캐런 바라드는 폴 엔니스(Paul Ennis)가 대륙철학으로부터 요구하는 형이상학과 사변, 그리고 실재론 사이의 동맹의 구축을 수행적실재론(AR)을 통해 실현하려 한다. 그러한 시도를 위하여 바라드는 얽힘(Entanglement)과 내적-작용(Intra-action) 그리고 매터링 등의 주요 개념들을 통해 세계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개념들을 다시 생동하는 세계 안으로 투영한다. 그녀는 우선 현상(Phenomena)의 조건으로 이미 주어지거나 가정되어져야 하는 주체와 객체들과 같은 형이상학적 개체들(metaphysical individuals)의 구분을 해체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호작용(Inter-action) 즉, 독립적인 객체(object)의 존재가 우선하며 그 이후에 그것들 사이에서의 작용이 일어난다는 개념이지만 그와는 대조적으로 바라드의 수행적실재론에 있어서의 내적-작용(Intra-action)에서는 오직 진행되고 있는 과정의 현상 속에서만 개체들(entity 혹은 agent)이 존재하며 그 개체들은 ‘물질화 되어진다(materialized)’고 설명되어진다. 즉 그녀는 현상 안에 얽혀있지 않은 개체들의 존재를 거부하며, 그녀에게 있어 현상이란 내적-작용을 하는 행위능력들(agencies)의 얽힘인 것이다.

세계는 다른 행위적 가능성들의 인식 안에서 매터링 그 자체로 의미와 형식을 얻는 진행 중이고 열려있는 과정들이다. 이 과정의 역사성 속에서 한시성과 공간성이 드러난다.

이러한 바라드의 사변을 포함하는 고유의 새로운 형이상학과 실재론을 통한 세계로의 통찰은 이 글의 도입부에 나오는 창 틀에 놓인 유리병 안의 두 액체의 끊임없는 출렁임의 매터리얼리티, 더 나아가 비선형 화학 반응의 대표적인 예 중 하나로 화학시계(chemical clock)라고도 일컬어지는 벨로소브-자포틴스키 반응(belousov - zhabotinsky reaction)의 매터리얼리티를 어떠한 경직된 제한 없이 내적-작용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을 서술하고 바라보는 인간 또한 그 세계의 외부로 분리된 전지적 관점을 가지는 주체로서 소외되지 않은 채 그 세계 안에서의 내적-작용을 하며 의미를 매터링하는 세계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하나의 개체(individual)인 것이다.

이러한 점들이 실제로는 브루노 라투어(Bruno Latour)의 행위자-연결망이론(ANT)과 켈탱 메야수와 그레이엄 하만 그리고 레이 브라시에가 피력하는 사변적실재론(SR)에서의 방법론을 공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드는 연결을 얽힘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기계와 행위자로 환원하지 않음으로써 객체가 내적-작용이 일어나는 현상 이전에 이미 세계에 주어졌어야만 가능한 객체지향적(OO) 사유의 한계를 과감히 극복하려 한다.

내적-작용의 개념은 인과관계 · 행위자 · 공간 · 시간 · 질료 · 의미 · 지식 · 존재 · 책임과 의무 · 정의와 같은 많은 근본적인 철학의 개념 안으로 중요한 전환의 표식을 남긴다.⁴⁾

3) 박이문 『노장사상』 문학과 지성사, 2004

4) Adam Kleinman 「Intra-actions」 Interview with Karen Barad

IV. 총위 그리고 결

이러한 물질과 실재 그리고 물질성으로의 매터리얼리티에 관한 여러 고찰들 속에서 우리는 인간중심적으로 배치된 물질 세계(Material World)로부터 한걸음 물러서서 ‘사물에 내재하는 현상(phenomena-in-things)’ 과 ‘현상 안에 놓인 사물(things-in-phenomena)’이 얽혀 있는 물질의 세계(world of materials)로의 진입을 가능할 수 있다. 인류학자 팀 인골드(Tim Ingold)는 객체(object)와 사물(thing)을 대질하며, 객체는 대상화 되어짐과 동시에 이미 사유 안에서 죽게 되고, 사물은 고정된 개념이 없으므로 사유 안에서도 생동하는 생명이 있다고하며 하이데거의 ‘사물이 사물화 되기(Things thinging)’라는 개념을 세계로 확장하여 ‘세계 되어지는 세계 안의 사물 되어짐(Thinging in a worlding world)’이라고 이야기한다.⁵⁾ 팀 인골드는 이처럼 객체 없는 환경(Environment Without Object/ EWO)라는 개념을 언어유희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예로 공중-의-새(bird-in-air)와 물-속의-물고기(fish-in-water)를 예로 들고 있다. 우리가 새와 공기, 물과 물고기를 개별적인 객체로 분리했을 때 그 객체들은 이미 사유 안에서는 새는 날지 못하고 물고기는 헤엄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보르헤스의 단편 『틀론, 우크바르, 오르비스 테르티우스(Tlön, Uqbar, Orbis Tertius)』에 나오는 명사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진행형으로만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사람들의 언어처럼, 하이데거의 사유하는 세계는 시간을 일련의 사건의 흐름들로만 기술하는, 즉 공간이 부재하는 존재론적 관념론으로서의 세계일 수 있다. 이러한 사유의 시공(時空)으로의 확장은 객체와 사물의 구별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래의 표를 통해 라투어의 사물(thing)과 객체(object)의 보다 명확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Object	Thing
Matter of fact	Matter of concern
Unrelational	Relational
Factual	Processual
Vitruvian	Connective
Stable	Responsive
Pre-delineated	Unstable

표 1⁶⁾

라투어는 개념적 대질을 통해 하이데거의 사물(Ding)과 객체(Gegenstand)의 개념을 다시-생각하기(Re-thinking)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형이상학을 다시 라투어의 ANT의 개념으로 가져왔을 때 사물이 가지고 있는 반응성(Responsive)과 연결성(Connective) 등의 성격은 객체 지향적인 ANT이론과 역설로서 부딪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은 사회적 행위능력(Social Agency), 정치적 행위능력(Political Agency) 또는 문화적 행위능력(Cultural Agency) 등 다른 위상에서의 연결에 있어서는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차이들(Differences)인 것이다. 리처드 에드워즈(Richard Edwards)는 ‘객체들은 재현되지만(represented) 사물들은 다시-현재화되는 것(re-presented)이다’고 하며 표상에 의하여 봉인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말한다.

사물이 관념화되어 봉인된 채 사물화 되어지려(Thinging)하는 하이데거적 사유에서의 사물에는

5) Tim Ingold 「Bringing Things to Life」 NCRM Working Paper Series, 2010

6) Jesper Magnusson 「Objects vs. Things」

매터리얼리티를 둘러싼 공간성이 부재한다. 그러나 수행적실재론(SR)을 통해 우리는 실제 미학적 혹은 과학적인 대상과 현상들 그리고 인간의 마음마저도 사물화되고(Thinging) 매터링되는 세계와 현상 안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얽혀진 실재들이 층화된 결들로 드러나는 사건으로의 세계 앞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다. 하이데거가 사유하는 고흐(Gogh)의 「구두」(1886) 또한 그림의 표상 혹은 현상학적인 서술이 아닌 물질로써의 그림 그 자체 그리고 그림이 놓여있는 세계를 포함하는 매터리얼리티적인 사유 또한 가능한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바로 분석적 사유만이 아닌 반대로의 만들어지는 과정(becoming process)의 내적-작용 또한 매우 중요하다. 질베르 시몽동(Gilbert Simondon)은 이러한 사유를 일찍이 시작하였는데 그는 『기술미학의 예술적 성찰』에서 건축의 특성을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창조 과정과 역동적이고 발생적인 형태화(개체화)의 과정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운동성의 포착을 핵심으로 삼는다. 그리고 미적 체험의 의미를 감상자가 아닌 창작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찾으려 한다.⁷⁾

기술미학은 단지 기술적 대상들의 미학이 아니다. 그것은 더 근본적으로 목적지향적인 동작들과 행위들의 미학이다.⁸⁾

시몽동은 질료형상론적인 고정된 틀에 부여된 질료의 구조적이며 정태적인 물질 개념을 비판한다. 예컨대 벽돌을 만드는 과정에서 진흙이 틀이라는 형상에 부여되는 수동적인 질료가 아닌 질료 자체에 능동성을 부여함으로써 질료의 잠재적 에너지(potential energy), 즉 진흙의 습도 등을 고려한 매터리얼리티의 변조를 가능하게 하여 형상화 시키는 기술성을 이야기한다. 이는 바라드가 말하는 개체들이 내적-작용하고 있는 매터링의 사유와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또한 이러한 정태적인 물질의 존재와 본질의 문제를 능동화(dynamisation) 하고자 하는데, 그는 이러한 문제들을 물질 그 자체에 국한하지 않고 그 물질이 만들어지고 실험되는 실험실 안으로까지 사유를 확장하여 과학철학의 형이상학적이고 근본적인 앎과 인식의 문제들을 ‘형이화학(Metachemistry)’이라는 그 만의 독특한 통찰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실현화를 다양화해야만 한다. 우리는 특정한 설탕에 대한 분석보다는 직접 설탕을 제조함으로써 설탕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다. 이러한 실현적 측면에서는 그 일반성을 찾지 말고 다만 그것에 대한 계획과 체계만을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과학적 사고는 전과학적 사고를 완벽하게 밀어낸다고 보겠다.⁹⁾

이와 같이 바슐라르는 실재(reality)를 그것의 드러난 존재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기술을 포함한 과정 자체와 물질의 작용에 의해 남겨진 물질적 껍적마저 추적한다. 그리고 실험으로 드러나는 서로 다른 층위들에서의 물질의 본질을 층위적 실재(Laminated reality)라 상정하며 그 과정을 실재의 실현(realization of real)이라고 설명한다.¹⁰⁾

7) 김재희 「질베르 시몽동의 기술미학」 한국미학예술학회 가을 정기학술대회, 2014

8) 질베르 시몽동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양식에 대하여』 김재희 옮김, 그린비, 2011

9) 가스통 바슐라르 『부정의 철학』 p.57 김용선 옮김, 인간사랑, 2005

10) Alfred Nordmann 「From Metaphysics to Metachemistry」 『Philosophy of Chemistry: Synthesis of a New Discipline』 p. 347, Springer, 2006

v. 결론

이 글을 통해 대륙철학의 인식론적 한계에 부딪힌 여러 사유들을 살펴봄으로써 바라드의 내적-작용과 매터링 그리고 매터리얼리티라는 개념을 통해 ‘과정(process)’과 ‘되기(becoming)’를 이야기 하였다. 또한 물질을 단지 조작을 통한 변화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얹으로의 매터소픽(Mattersophic)한 사유들을 통하여 세계의 여러 층위들의 결들을 더듬어 보고자 하였다. 오늘날 테크놀로지와 과학의 성취들, 그리고 어지러울 정도로 다원화되는 사회와 문화 속에서 자의적이건 타의적이건 우리의 삶을 포함한 수많은 사유들은 재설정화(re-configuration) 되어 진다. 그러나 이 복잡한 사태들 앞에서 다시-생각하기(re-thinking)는 그만큼 세계를 다시-알기(re-knowing)를 그리고 다시-보기(re-viewing)를 가능하게 하며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다시 피드백되어 새로운 얹으로의 사유로 그리고 나아가 과학과 기술을 통한 재-도구화(re-tooling)되기를 그리고 다시-물질화되기(re-materializing)를 반복할 것이다.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가 그의 회고록에 쓴 글은 오늘 우리의 고민들과 소란스러움이 새롭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한다.

하나의 과학적 사건은 나의 길 위의 중요한 장애물 중 하나를 제거해 주었다. 그것은 원자들의 더 많은 분열에 관한 것이었다. 나의 영혼에 있어서 원자의 붕괴는 마치 전 우주의 붕괴와도 같았다. 문득 가장 두꺼운 벽이 부서졌다. 모든 것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이 되었다. 나는 나의 눈앞에서 가벼운 공기로 용해되고 보이지 않게 되는 하나의 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에 놀라지 않을 것이다.

금속학자이자 과학사가인 시릴 스탠리 스미스(Cyril Stanley Smith)는 「예술, 발명 그리고 테크놀로지에 관하여」¹¹⁾라는 글에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기술은 과학의 응용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자들의 물질과 메카니즘과의 친밀한 경험에 의한 지적 해결책으로써 제시된 문제들로부터 과학이 생겨났다고 말한다. 또한 기술자들은 과학자보다는 예술가들과 유사한 데 그 이유는 그들이 분석할 수 없는 복잡성들과 함께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전통적이거나 혹은 새로운 미디어, 테크놀로지, 과학적 방법들과 이론들이 수용된 예술 작품이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언제이고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물질로의 실천(Material practice)으로의 매터링이 그것이 의미로써 또는 매터리얼리티로써 현장에서 실현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기술과 과학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고 근래에 빈번하게 회자되고 있는 융복합이라는 개념보다 더욱 복잡하게 얽힌 채로 예술가들에 의해 실천되어지고 있다.

11) Cyril Stanley Smith 「On Art, Invention, and Technology」 Leonardo vol.10, Pergamon Press, 1977

초과의 사유와 끝날 수 없는 수행

오 준 호 (서강대학교)

이 논문은 존재론 차원에서 매터리얼리티와 인식론 차원에서 메터소피라는 새로운 개념어를 통해서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는 인간중심주의와 상관주의를 극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세계는 독립적인 객체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작용을 하는 행위 능력들의 얽힘인 현상들이며, 대상화와 분석적 사유 대신에 내적-작용과 되어짐을 사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객체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다능적인(pluripotential) 잠재성이며 물질들의 다양한 층위에서 맺어지는 관계와 벌어지는 과정에서 현실화되는데, 이 관계와 과정을 사유하는 인식론적 방법이 중요하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좀 더 간략히 표현하면, 표상될 수 없는 사물들의 생동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사유를 돌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논문에서 전개되는 존재론적인 차원의 고찰에 공감하면서도 인식론적인 차원의 주장은 표상될 수 없는 영역을 사유해야 한다는 역설처럼 비추어지기도 하는데, 메터소피의 방법론으로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이 질문을 보충하면, 체계 혹은 제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매터리얼리티로 표현된 실재론에 동의하더라도, 만약 실체들과 특정한 관찰 체계 내에서의 실체들을 구분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인식론적 탐구를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체계이다. 동시에 의미화의 전제로서 제도적 영역들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짚어자는 매터리얼리티로 상정된 존재론에서도 출될 수 있는 궁극적 함의는 실천의 제도 비판적 측면이라고 본다. 광범위하게 과학과 예술로 구분해서 접근해 보았을 때, 매터리얼리티는 두 제도에서 맹목적인 혹은 비활성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사물들의 활력 혹은 행위 능력들을 탐구해야 한다는 요청으로 이해되며, 이 요청은 기존 제도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정치적 함의를 갖게 된다. 매터리얼리티는 소외, 분리, 배제의 극복이라는 문제를 인간의 범주에서만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외의 행위자들까지 확장하는 관점을 요구하기 때문에 급진성을 획득한다.

이 급진성의 실천을 상상해 볼 때, 사물들에 다가가는 인간 행위자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공방 혹은 실험실에서 작업자가 사물들의 변화무쌍한 면모들에 개입하고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그런데 문제는 작업장에서의 과정이 종료되고 이를 특정한 제도 안에 등록하려고 할 때 발생한다. 매터리얼리티는 정의 자체에서 과정상에서만 그 본래적 의미를 유지할 수 있고, 어떤 특정한 국소적 표현들에 특권을 부여할 수가 없다. 매터리얼리티는 물질적 속성들이 아니라 사건들(현상들)이고, 사건들을 인과관계로 환원하려는 태도로서는 접근될 수 없기 때문에 내러티브 또한 구성될 수가 없다. 만약 어떤 예술가가 매터리얼리티에 입각해서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작업의 결과로서 특정한 사건들의 자취나 상태를 미술관에 전시한다면, 곧바로 매터리얼리티에서 떨어져 나와 심미적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메터소피가 표상될 수 없는 영역을 사유해야 한다는 역설을 내포하듯이, 매터리얼리티의 실천은 제도 비판적이고 급진적인 속성을 갖지만, 그 실천의 의미화가 어느 제도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역설을 갖는다.

애초에 매터링의 존재론과 인식론 그리고 실천은 인간 행위자의 관념과 제도의 행위 능력을 넘어서 있는 초과를 지시하기 때문에 어떤 비약을 상정하지 않고서는 넘을 수 없는 절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오직 매터링에 관계하는 인간 행위자만이 그 초과를 감각할 수 있을 뿐이고, 상징화, 형식화될 수 없는 끝없는 수행 속에서만 실천의 의미가 유지된다고 본다. 이 초과를 암묵지(tacit knowledge)라고 한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번역해낼 수 있는 제도가 가능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메타소피의 방법론을 구상하는 문제와 동일한 차원에 놓인다고 보인다.